

2026년 ANC 말씀 세미나 가을학기
Zoom 을 통한 제자(목양/양육) 사역
김정복 목사 말씀 세미나

요한복음 강해 (4) 9/ 8(화)

8/18(화)-9/29(화) (7주간) 오후 7:30-9:00
(2026. 8/18. 25. 9/ 1. 8. 15. 22. 29.)

신청 및 문의 :

장대수 팀장(562-896-5701)/정훈 목사(434-229-0679)

요한복음의 장 별 주제 내용

하나님의 아들(Son of God) :
예수 그리스도

- 1 장 : 말씀(Logos)/하나님과 예수님
- 2 장 : 혼례와 포도주/성전과 예수님
- 3 장 : 거듭남/니고데모와 예수님
- 4 장 : 갈증/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 5 장 : 치유/베데스다 연못과 예수님
- 6 장 : 참된양식/오병이어와 예수님
- 7 장 : 예수님의 때/생수의 강(성령)
- 8 장 : 율법/죄와 예수님
- 9 장 : 눈먼 자/안식일과 예수님
- 10 장 : 선한 목자/양의 문과 예수님

- 11 장 : 죽음과 부활과 예수님
- 12 장 : 참된 헌신과 예수님
- 13 장 : 참된 스승(멘토)과 예수님
- 14 장 :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
- 15 장 : 포도나무와 가지와 예수님
- 16 장 : 성령님의 오심과 예수님
- 17 장 : 예수님의 기도
- 18 장 : 불법 재판과 예수님
- 19 장 :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
- 20 장 : 예수님의 부활과 가르치심
- 21 장 : 예수님의 현현과 가르치심

죄와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요8:1-11)

밤에는 산에서 기도하시고, 아침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1) 요8: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알 수 있다.

예수는 감람 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 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 지라
앞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하신다.

예수님은 감람 산으로 가셨고, 아침에 성전으로 오셨다면
예수님이 밤에 계셨던 곳은 감람 산이다.

2) 예수님은 감람 산에서 무엇을 하셨을까? 물론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밤에는, 산에서 기도하셨고
아침이면, 성전에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셨다.

기도와 말씀/ 복음전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죄인을 율법으로 고소하다

3) 이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께 와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고 예수님을 시험한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레20:10)

4) 이때에 예수님은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계속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모두 떠나고,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다.

이 말씀이 주는 영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

아침에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데
예수님 앞에 갑자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성전으로 끌고 들어 와서
예수님께 율법으로 고소하고 시험한다.

율법에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부정한 여자나 남자는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데 끌고 들어왔다/ 불법/죄

(3) 율법에는 누구든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함께 죽이라고 했는데
연약한 여자만 끌고 왔다/ 불법/죄 (레20:10)

예수님은 왜 저들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4) 그대에 예수님은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시면서 저들을 바라보지 않았다.

(5) 예수님은 왜
이 때에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을까?
무엇이라고 쓰셨을까? 많은 의견(?)들이 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기를 원하셨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6) 지금은 그 여자를 정죄 하고 있지만 후에 그들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자가 있다면, 그들의 얼굴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그들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은 것으로(?) 사료(思料) 된다.

예수님

말씀/ 빛/ 생명/ 사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 어두움/ 정죄/ 고발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하였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요8:7)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 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요8:9)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요8:10-11)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속량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 받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우리의 죄를 정죄/심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다/ 은혜와 사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롬10:4)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겟세마네 동산의 잔/선악과(눅22:42)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요19:30)/ 죽으심/ 대속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요19:33-34)/ 피흘리심/ 생명(히9:22/레17:11)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8 :12)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빛은 어둠/죄를 밝힌다.

1)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창1:1),
이 땅에 먼저 찾아 온 것은 흑암이었다(창1:2/사14:12-15/겔28:13-17).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1:1)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창1:2)

2) 하나님은 이 흑암/죄를 제거 하기 위하여 빛이 있으라하시니,
빛이 있었고(창1:3) 그 빛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창1:4)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창1:3-5).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은 어떠한 빛 인가?

(3) 물론 태양 빛은 아니다. 태양은 넷째 날에 창조되었다.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다.
곧 그 빛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요일1:5)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8:12)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요1:3-5)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 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요1:9-13)
새 예루살렘 성(계21-22장)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계21:23)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취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계22:5)

예수님의 따르는 자의 삶

(4) 예수께서 말씀 하시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 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와 악의 세상에 머물지 아니하며,

빛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 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롬13:11-14)

너희는 빛을 발하는 자이다

(5)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빛을 얻고 발하는 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취라. "Shine Bright"
너희 믿는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취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basket)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lampstand)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취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5:14-16)

빛을 비취다(Shine Bright)는 말은 어떤 것인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5:16)

“빛을 비취다(Shine Bright)”란 말은 무슨 뜻인가?
너희 착한 행실(Your good works) 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5:16)

사람들 앞에 비취는 나의 빛은
나의 착한 행실(good works/양선)/성령의 열매이다(갈5:22-23)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이다

착한 행실(Good work)은 성령의 열매 이다

착한 행실(good works)은 성령의 열매(양선/Goodness) 이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고 사는 삶이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육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 충만한 삶/ 막1:35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롬13:14)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자아(Ego)파쇄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갈3:27)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8:31-47)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의 영적 의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

예수님 = 의의 길/십자가의 대속 = 진리 = 생명

1) 진리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터 자유롭게 하시는가?

죄(罪)와 율법(律法)과 죽음(死亡)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

1) 모든 죄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Sins)을 대속(Redeem)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흘리시고(요19:30-34)
부활하심으로 저를 믿는 자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아 영생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3:16)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God's Seed)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요일3:9)

2)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The end of the law)이 되셨다(롬10:4)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심판을 받지 않는다.
자유함이란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이지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다
진리(Jesus Christ)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8:32)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The Resurrection of life)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The Resurrection of condemnation)로 나오리라(요5:28-29)

3)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를 믿는 자는 육체(Flesh)는 죽어도
그의 영체(Soul & Spirit)는 죽지 않는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마28:5-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육체는) 죽어도 (영체는)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체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11:25-26)

우리의 몸은 육체(Flesh)와 영체(Soul & Spirit)로 되어있다

(1) 첫째 사망은 육체(Flesh)의 죽음이다.

(2) 아담의 자손은 원죄와 자범죄를 범하였으므로
육체(Flesh)는 반드시 죽는다.

죄의 삯은 사망(육체)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영체)이니라

(롬6:23)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Spirit)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Flesh)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일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창6:3)

둘째 사망은 영체(Soul & Spirit)의 죽음이다

(3) 둘째 사망은 영체(Soul & Spirit)의 죽음이다.

(4)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영체(Spirit & Soul)가 떠난 자이다.

하나님의 영체(Soul & Spirit)가 떠난 자는 마귀의 자녀가 된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Evil Spirit)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음이니라(요8:44)

산 자(Holy Spirit)와 죽은 자(Evil Spirit)

3) 영체가 산 자와 영체가 죽은 자는 누구인가?
산 자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이고
죽은 자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15:5)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백보좌 심판에서

산 자(Holy Spirit)와 죽은 자(Evil Spirit)를 심판 하신다
생명책(The Book of Life)에 이름이 있는 자는 산 자이고
이름이 없는 자는 죽은 자이다.

영체(Soul & Spirit)의 산 자와 죽은 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행위록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생명록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The second death) 곧 불 못(The lake of fire)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계20:11-15)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일5:12)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하신 예수님의 사역의 영적의미

(요9:1-7)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한다

1)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어 이르되,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님께서서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 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요9:3)

2) 사람들은 불행한 일이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당한 사람을 보면
흔히 자기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의 팔자(운명)라고 생각하기 쉽다.

3)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신다.

나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한다

4) 사람의 죄의 값은 사망이다(롬6:23),

죄는 예수를 믿으면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사함 받지 못한다.

따라서 그가 맏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의 죄나 그의 부모의 죄와는 관계가 없다.

5) 모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된
피조물들 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분의 뜻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분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눅22:42)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6)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을 알고 있었다.

7) 따라서 사람은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기쁜 일을 당하거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해야 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살전5:16-18)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4:4-7)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8)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 왔다/ 육체적 눈이 떠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8:12)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어둠에 속하지 않는 자이다

9)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 하신다.

(1) 이 말씀은 세상은 어두움이고
예수님은 빛이라는 뜻이다.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죄와 악에 속하지 말고,
빛/예수 안에서 살라는 말씀이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일2:15-16)

사람에게는 육안(Naked eye)과 영안(Spiritual eye)이 있다

(2) 사람에게에는 두 가지 눈(Eye)이 있다.

하나는 육체에 있는 육안이고, 다른 하나는 영체에 있는 영안이다.

육안이 안 보이면 맹인이고, 영안이 안 보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말씀이 안들리며 안보인다.

영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열리고
말씀은 믿을 때에 알게 된다(요6:69)

(3) 안드레, 빌립, 니고데모는 모두 예수님을 만나 그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그의 영안이 열렸고 메시아로 고백했으며(요1:40-49)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마16:16).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 보게 하신다

(1) 발람의 눈/영안을 여신 하나님

그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민22:31-33)

엘리사와 아람군사와 사환의 눈

(2) 엘리사의 기도로 사환의 눈/영안을 여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아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왕하6:15-17)

영안(Spiritual eyes) 이 열려야 한다

10)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에,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항상 영안(Spiritual eyes)이 열려 있고
성령으로 충만 하여야 말씀이 눈과 귀와 마음에 들리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 아멘(Amen)하게 된다(고후1:20/계3:14)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Yes)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후1:20)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Soul)에는 원이로되 육신(Flesh)이 약하도다(마26:41)
술(Flesh)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Holy Spirit)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엡5:18)

육체의 눈(Naked Eye)과 영체의 눈(Spiritual Eye)

예수님은 전에 "육체"(Flesh)의 눈이 맹인이었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눈이 떠진 그 사람을 다시 찾아 가셔서
그의 영체(Soul & Spirit)의 눈을 열어 주신다.
그를 만나, 네가 인자를 믿느냐?고 물으신다. 그가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하니
예수께서, 네가 그를 보았고,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 이니라 하시니 맹인 되었던 자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하고, 예수님께 절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함이라 하신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누가 진정한 맹인(Blind Person)인가?

여기서 심판은 헬라어로 "크리마"(κρίμα)로 마지막 날의 심판이 아니고
예수님이 빛으로 오실 때에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영적 상태가 드러나는 현재적인 모습을 뜻하는 것이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도 맹인인가?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은 너희가 육체적으로 맹인이었더라면 날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 죄가 없으려니와
육체의 눈이 보인다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들은
영체의 눈이 맹인이라는 뜻이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믿음과 구원

육체의 눈이 맹인이 되어 고통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 육체의 눈이 떠지기를 간구하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육체의 눈이 떠지고, 죄 사함을 받아,
영체의 눈까지 열린 사람이 거지 바디메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막10:46-52)

예수님은 맹인의 눈만 아니라 나병 환자도 말씀으로 고쳐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병고침을 받은 사마리아 인의 감사

육체(Flesh)의 병 고침을 받고
사마리아 인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그의 믿음으로 보시고
그의 영체(Soul & Spirit)까지 구원하여 주신다
(눅17:11-19)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2:8)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이며 사랑이다.

